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동강대학

光州日報

광주 7/23℃ 목포 7/20℃ 여수 13/21℃

단기 4344년 (음력 9월 2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84호 1판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SUN 컴백

KIA 감독 선동열 수석코치 이순철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사진 위〉이 KIA 타이거즈 7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관련기사 16면〉

KIA 타이거즈는 18일 성적 부진을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조범현 감독의 뜻을 받아 들여 선동열 전 삼성 감독을 후임감독으로 선임했다.

'국보급 투수'로 타이거즈를 대표했던 선 감독은 지난해까지 6년간 삼성을 지휘하며 든든한 불펜을 통한 '지키는 야구'로 2005·2006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등 지도자로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했다.

'재간둥이' 이순철〈아래〉 전 LG 감독도 수석코치로 선동열 사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광주일고와 광주상고를 대표하는 라이벌이자 삼성과 LG 사령탑으로 맞대결을 벌였던 두 사람은 친정팀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로서 호흡을 맞추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길 만들기 경쟁 분별 잃었다

재정난 허덕 광주 자치구들 산책로 등 마구잡이 조성

수요·타당성 조사도 없이…예산낭비 지적

재정난에 허덕이는 광주 지자체들이 기본적인 수요조사도 없이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잇따라 조성,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들 사업은 1m 조성하는 데 수백만원이 드는데다 혜택을 받는 주민이 제한돼 있음에도 민원이나 국비 보조 등을 이유로 추진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향후 관리비 부담까지 지자체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북구 문흥동 호남고속도로 인근 1742m 구간 기존 보행로에 나무데크를 까는 데 8억원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광산구 수완지구 수완저수지 인근 580m의 보행로 개선 및 200m의 생태관찰로 설치에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서창~남구 신가교에 이르는 18.1km 구간 자전거도로사업에 81억4600만원이 배정돼 올해 12억66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북구 문흥동의 경우 이미 설치된 400m의 나무데크 보행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10억원이 소요되는 '천지인 문화소통길'사업 중 일부다. 하지만 연장 구간은 현재 걷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갈길로 돼 있어 이 곳에 나무데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대거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정형편 때문에 하지 못했던 도로 개설 등 숙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라며 "올해 사업은 주민들이 나무데크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청 역시 "수완지구 주민들의 여가공간이 부족해 인근 저수지 주변 정비와 내부 산책로 설치 등의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북구와 광산구는 국비와 시비 외에도 각각 2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서구와 남구가 자체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올 연말 완공이 무기한 연기될 처지다. 국비 50%, 시비와 구비 각각 25%의 비율로 예산이 배정됐지만 서구와 남구가 각각 11억원과 3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로 인공시설을 더하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풍류 즐기는 선비들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18일 오후 담양군 지곡리 부용당에서 산책과 토론을 하며 여름을 났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발을 씻으며 무더위를 달랬던 선비들의 '탁족' 행사 등이 열렸다. 〈관련기사 1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영구임대주택 1200호 짓는다

내년부터 3년간 국비 683억 확보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영구임대주택 1200호를 건립한다.

광주시는 18일 광주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희망자가 지난달 말 현재 8900여 명에 이르는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200호를 건립,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 초부터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온 결과 지난 13일 국비 68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전체 사업비를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광주시는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실·국별로 세부 시행방침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영구임대주택이 10개 단지에 1만3920호, 국민임대주택은 38개 단지에 2만904호가 건설되어 있으나 입주대기 희망자만 8987명(영구임대주택 7063명, 국민임대주택 1924명)에 이르는 등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이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알림

제2회 호남 초중생 영어평가대회

31일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광주일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중학생 자녀들의 영어실력을 키우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광주일보는 한국토익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영어교육학회가 후원하는 제2회 호남 초·중학생 영어학력평가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ETS와 연계, 29년간 한국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국내 최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토익위원회와 YBM-sisa가 시험 전과정을 총괄, 최고의 공신력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2회 대회부터는 광주·전남 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까지 확대해 실시합니다. 이번 대회 성적우수자는 물론 1회 대회보다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생에게는 각종 상과 부상이 수여되며 해외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성적분석표와 전국순위, 상관관계표를 통한 TOEIC 예상점수 예측 등이 상세하게 분석돼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영어성적을 향상시키고 TOEIC 시험을 준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선생님, 학원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접수일자** : 10월 4일 ~ 10월 31일
- **신청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 **대상** : 광주·전남·전북 초·중학생(초1~6학년, 중1~3학년)
- **경시대회 일자** : 11월 12일(토) 오전10시
- **경시대회 장소** : 광주·전남·전북 30개 고사장 (추후통보)
- **평가 과목 및 참가비** : 초등부 - JET (22,000원)
  중등부 - TOEIC bridge (29,000원)
- **특전** : 성적우수자 부상 및 해외어학연수비 지원
- **문의** : 광주일보 062-220-0555

光州日報社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제37회 광주 사범·사대·교육대 총동문체육대회
·일시 : 2011. 10. 23(일) 09:30
·장소 : 모교운동장
·주최 : 광주 사범·사대·교육대 총동문회
·주관 : 광주교육대 28회 동창회
·연락처 : 062-520-4038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 정 선